

第19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2年9月2日(水) 15時07分 開式

第19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臨時會) 開會式順

1. 開 式
2. 國旗에 대한 敬禮
3. 愛國歌齊唱
4.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
5. 開會辭
6. 閉 式

(司會 議事係長 韓相殷)

(15時07分 開式)

○議事係長 韓相殷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第19回 鍾路區議會 臨時會 開會式을 舉行하겠습니다.

먼저 國民儀禮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서서 壇上의 國旗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愛國歌 齊唱이 있겠습니다. 錄音된 前奏曲에 따라 1節만 齊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 齊唱)

이어서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이 있겠습니다.

(一同默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着席)

다음은 議長님의 開會辭가 있겠습니다.

○議長 李斗鶴 議員 同志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세월도 참으로 유수와 같이 멀지 않아서 4대 名節인 가장 즐거운 秋夕을 맞이하게 되는 이 때 우리가 第19回 臨時會를 오늘 맞이하고 보니 대단히 感慨無量한 감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잠시 이 자리를 통해서 지나간 한두 가지를 되풀이해서 檢討해 볼 때 우리 議員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해마다 여름이 닥치면 暴雨와 水害가 있어서 많은 農民들의 가슴이 쓰라린 때가 每年과 같은 정기행사로서 아로새겨질 정도로 그런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금년에는 무덥고 또 비가 와서 다소 피해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걱정하는 폭우나 폭풍이 없이 또 예상 외의 大豐年을 맞이하는 92年이라는 것이 예상되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國家的으로 즐거운 이때 그러나 반면에 소폭적으로 생각할 때 鍾路區는 예상 외 政治的으로 뭔가 모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區民들까지도 아직까지 마음에 안정을 기하지 못하는 원지 모르게 허전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議員님 여러분께서는 모든 隘路를 무릅쓰고 오로지 區民의 대의기관인 鍾路區議會의 깃발 아래 항상 和合의이고 和睦의이며 특히 오늘날 하더라도 만부득이한 議員 외 전원 이 참석을 해서 第19回 臨時會를 맞이하고 보니 동지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에 비할 바 없이 감사한 마음 한량없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議員님 여러분! 여러 가지 애로 고초가 많으시지만 항상 공과 사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오로지 洞을 대표하고 또 區民의 대의기관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의 현재 나아갈 길은 항상 정도를 걸어나

2 (第19回一開會式)

갈 수 있는 議員이 되고 議會運營이 되어
서 區民에게 선도적인 그러한 깃발의 전초
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입장을 견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第19回 臨時會
案件이 한건한건 심도있고 신중하게 올바른
區民福祉에 기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
원드리면서 저의 開會辭를 갈음하고 싶습니
다.

○議事係長 韓相殷 이것으로 第19回 鍾路區
議會 臨時會 開會式을 마치겠습니다.

(15時14分 閉式)